

사회적 지지가 빈곤계층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연령과 환경적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윤 현 수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빈곤계층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과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자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0세-5세 유아 159명과 초등학교 1학년-6학년 학생 141명, 총 300명(남 157명, 여 143명)의 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위험요인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졌으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모보다 영유아 자녀의 모에게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정도는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영유아 집단의 경우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반해 초등학교 생 집단에서는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기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빈곤가정의 모에 대한 조기개입 전략의 중요성을 포함한 임상적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빈곤,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환경적 위험요인, 연령, 중재효과

* 이 논문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자료의 일부를 사용한 것임.

[†] 교신저자 : 오경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Fax : 02-2123-4063, E-mail : kjoh@yonsei.ac.kr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부중심으로 가족 체계가 축소되면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모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을 맡고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모의 경우는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운데,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모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모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적응적인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ilver, Heneghan, Bauman, & Stein, 2006). 더욱이, 장애아동 양육, 이혼, 경제적 곤란 등의 환경적인 어려움이 동반될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Elder, Eccles, Ardel, & Lord, 1995; Pittman, Wright, & Lloyd, 1989; 이어진, 정경미, 진혜경, 2010; 안인순, 2002)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내어 이를 완화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빈곤이라는 환경은 경제적인 압박 및 이와 관련한 실제적인 물리적 결핍과 기회의 부족을 의미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빈곤가정의 경우 이혼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가정 등의 가족 구조상의 결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McLanahan, 1997; Chase-Lasdale, Brooks-Gunn, & Zamsky, 1994),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및 가족 내 폭력(Browne & Bassuk, 1997)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우울증(Hobfoll, Ritter, Lavin, Hulsizer, & Cameron, 1995)이나 물질남용/의존(Mayes & Bornstein, 1997) 등의 정신병리적 문제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빈곤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거주지 주변의 환경 자체가 범죄에 취약하

여 신체적, 성적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Luthar, 1999).

빈곤 가정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이와 같은 환경적 위험요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빈곤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Pittman 등(1989)은 지각된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Elder 등(1995)도 낮은 수준의 경제적 수입과 불안정한 수입이 경제적 압박감을 가중시킴으로써 부모의 정서적 고통을 증가시키고 양육행동의 효능감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양육 스트레스를 예측해준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Spencer, Kalil, Larson, Spieker, & Gilchrist, 2000), 빈곤이라는 환경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생활사건 스트레스들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Östberg & Hagekull, 2000).

이처럼 빈곤과 관련한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한편,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보호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Chang 과 Fine(2007)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2-3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의 경로를 추적한 종단연구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집단과 감소하는 집단을 구분해주는 요인으로 모의 개인적인 심리적 자원이 중요함을 보고하였는데,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심리적 자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개인은 돌봄이나 사

량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존중되고 가치가 있고, 관계에 속해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Cobb, 1976).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지지의 내용에 따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Jacobson, 1986). 정서적 지지는 공감이나 관심, 돌봄, 사랑, 신뢰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지지를 의미하며,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상황적인 요구들에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조언이나 지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또한, 도구적 지지는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지지로, 돈이나 물건, 시간 등을 사용하여 돕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양육자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및 모의 우울 수준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과 Basham (1983)은 남편, 가족, 친구, 이웃 등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범위 및 지속 정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지각정도가 완화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Melson, Ladd와 Hsu(1993)도 유아를 양육하는 모의 사회적 지지의 크기가 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과제를 덜 어렵다고 지각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모가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양육과제 전반에 대해 어려움을 덜 지각하고, 모의 사회적 지지의 크기와 빈도가 부모영역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이은혜, 1997). 사회적 지지는 또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urchinal, Follmer & Bryant, 1996; Östberg & Hagekull, 2000).

사회적 지지가 빈곤 혹은 이와 관련한 환경

적 위험요인들에 노출되어 있는 모의 양육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에서, McLoyd(1990)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정서적 고통의 수준이 낮아지며, 이는 다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Pearlin 등(1981)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배우자의 이해와 지지가 우울을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Taylor(1994)도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는 환경에서 가족과 이웃의 정서적 지지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Elder 등(1995)도 경제적 빈곤이 모의 정서적 고통과 부모로서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또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연령이다. 지금까지의 양육스트레스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Spencer 등, 2000). 자녀의 연령이 증감함에 따라 모에게 요구되는 주된 역할의 내용이 달라짐을 고려할 때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Crnic과 Booth(1991)는 모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자녀가 9-12개월일 때보다 30-36개월일 때 더 높아진다고 하면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학령기 아동의 부모는 학부모 역할 수행 및 자녀의 학업적 성취 수준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모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정명숙,

2008; 강희경, 2003).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모는 모 자신의 특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운 것에 반해(Chang & Fine, 2007),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모는 자녀가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적절하게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특성이나 자녀의 특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정명숙, 2008).

빈곤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빈곤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또는 이러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특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곽금주, 유제민, 김정미, 2007), 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인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환경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곤 가정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확인된다면, 이는 빈곤 가정의 모에 대한 실제적인 개입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의 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아동의 연령과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이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대의 아동을 포함시킴으로써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 중에서도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어 온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Taylor, 1994; Elder 등, 1995), 이는 양육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빈곤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빈곤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 가정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의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경기, 강원 및 전라도의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0세-5세 유아 159명과 초등학교 1학년-6학년 학생 141명, 총 300명(남 157명, 여 143명)의 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영유아집단과 초등학생 집단의 성별에 따른 평균 연령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영유아 및 초등학생 집단의 성별에 따른 평균 연령

	영유아		초등학생	
	남(n=88)	여(n=71)	남(n=69)	여(n=72)
평균연령	3.40(1.58)	2.96(1.62)	9.33(2.01)	8.90(1.90)

각 연령집단에서 남녀 집단의 평균연령 차이는 영유아, 초등학생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측정도구

환경적 위험요인(Environmental Risk Factor)

환경적 위험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일반위기지표 문항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일반위기지표 문항 중 빈곤한 가정에서 흔히 관찰되는 다양한 위기요인인 가족의 구조적 결손(미혼모 가정/한부모 가정/조손가정 등), 부모의 정신병리/신체장애/만성질환, 부부갈등 및 부부간 폭력,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존재 여부, 6개월 이상 지속된 부모의 실직상태/신용불량상태/가구의 무수입 등과 같은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 거주지 주변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표/짚은 범죄 행위/실직자 급증 등과 같은 거주지 주변의 환경적 위험도, 가족구성원의 수감경험 등의 16문항에 대해 ‘아니다’와 ‘그렇다’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여 반응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70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이 척도는 Abidin(1995)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PSI-SF)을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2008)이 번안한 것으로, 부모 보고 형식으로 만 1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Difficult Child)의 3개 하위 척도로 측정한다. 각 하위척도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경숙 등(2008)의 양육스트레스 검사 축약형 표준화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부모의 고통 .84,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76, 까다로운 아동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가 부모 역할을 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자 하여 부모의 고통(PD)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고통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에는 “나는 가끔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가 없다고 느낀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등이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면적 척도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ieved Social Support: MSPSS)

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Zimet, Dahlem, Zimet, Farley(1988)

가 개발한 척도를 2개국어(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임상심리학 박사가 번역한 후 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 가족(예: “가족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감정적 도움이나 지지를 받는다”), 친구(예: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친구들을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타인(예: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의 세 가지 영역에 걸쳐 일상 생활에서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1점(아주 강한 부정)부터 7점(아주 강한 긍정)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12점부터 8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가족요인 .71, 친구요인 .71, 중요한 타인 요인 .77로 나타났다.

절차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각 지역의 드림스타트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모와의 면담을 통해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한 문항들을 체크하였다. 또한, 아동의 모가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적 검증은 PASW 18.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군 및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

석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에 대해 연령군과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를 다변량 분산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Wilk's Lambda를 지표로 삼았을 때, 연령군에 대한 주효과, $F(1, 295)=5.73, p<.001$, 만 유의하였다.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환경적 위험요인과 양육스트레스였는데, 환경적 위험요인은 영유아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F(1, 295)=9.02, p<.01$, 양육스트레스는 초등학교 집단에 비해 영유아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F(1, 295)=4.15, p<.05$. 주요 변인들에서 성별에 따른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동의 연령, 환경적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연령과 환경적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그리고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은 환경적 위험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 $r=.17, p<.05$,이 있는 것으로

표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영유아			초등학생		
	남 (n=88)	여 (n=71)	전체 (n=159)	남 (n=69)	여 (n=72)	전체 (n=141)
환경적 위험요인	2.59 (2.22)	2.41 (2.64)	2.51 (2.41)	2.99 (2.40)	3.74 (2.60)	3.37 (2.53)
모가 지각한 사회적지지	54.40 (14.57)	56.30 (15.18)	55.24 (14.82)	54.00 (13.47)	53.19 (14.34)	53.59 (13.88)
모의 양육스트레스	30.93 (9.46)	31.21 (9.46)	31.06 (9.43)	27.99 (8.74)	29.82 (8.90)	28.92 (8.84)

주. ()안은 표준편차.

표 3. 아동의 연령, 환경적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

	아동의 연령	환경적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
환경적 위험요인	.17*			
사회적 지지	-.04	-.17*		
양육 스트레스	-.16*	.11	-.36**	

* $p < .05$, ** $p < .01$

나타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경적 위험요인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환경적 위험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 $r = -.17, p < .05$, 을 나타내 환경적 위험요인이 증가할수록 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연령, $r = -.16, p < .05$, 및 사회적 지지, $r = -.36, p < .01$, 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적 위험요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r = .11, ns$.

아동의 연령군에 따라 환경적 위험요인 및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여 연령군별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에 의하면 영유아집단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환경적 위험요인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r = .18, p < .05$,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 $r = -.48, p < .0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적 위험요인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을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으나, $r = -.22, p < .01$, 환경적 위험요인과는 유의한 상관, $r = .08, ns$. 한편, 환경적 위험요인과 사회적지지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 $r = -.18, p < .05$,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환경적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

	환경적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
환경적 위험요인		-.18*	.08
사회적 지지	-.16		-.22**
양육 스트레스	.18*	-.48**	

* $p < .05$, ** $p < .01$

주. 대각선 아래쪽은 영유아집단, 위쪽은 초등학생집단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효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 변인만 투입된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12.4% 설명하였고, $F(1,298) = 43.84$, $p < .001$, 아동의 연령 변인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의미한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변인

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경우에는 6.0%의 증분 설명력을 보여주었는데, $F(1,298) = 24.834$, $p < .001$,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령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두 연령군에 대해 각각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표 6과 그림 1에 제시되었다. 표 6에 의하면 영유아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22.2% 설명해주었고, $\beta = -.477$, $p < .001$, 초등학생집단은

표 5.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연령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β	$R^2(\text{adjusted})$	ΔR^2	F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A)	-.356***	.124	.124	
	아동의 연령(B)	-.099	.131	.007	
	A × B	-1.096***	.191	.060	24.834***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영유아집단 vs. 초등학생집단)

	예측변인	β	$R^2(\text{adjusted})$	F
사회적 지지	영유아집단	-.477***	.222	47.349***
	초등학생집단	-.223**	.043	7.29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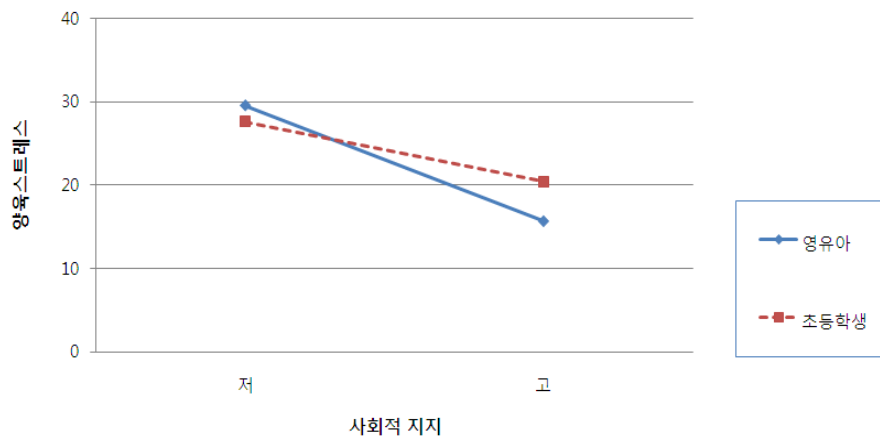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4.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23, p < .05$. 즉, 영유아집단은 초등학생집단보다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위험요인의 효과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라 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환경적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가 연령집단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고려하여 연령집단을 구분하여 환경적 위험요인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영유아집단의 경우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 변인만 투입된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22.2% 설명하였고, $F(1,157) = 46.17, p < .001$, 환경적 위험요인 변인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의미한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경우에는 4.9%의 증분 설명력을 보여주었는데, $F(1,157) = 20.22, p < .001$, 이는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적 위험요인의 중재효과를 구체

표 7. 사회적 지지와 환경적 위험요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영유아집단)

	예측변인	β	$R^2(\text{adjusted})$	ΔR^2	F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A)	-.477***	.222	.222	
	환경적 위험요인(B)	.021	.218	-.004	
	A × B	.804**	.267	.049	20.22***

* $p < .05$, ** $p < .01$, *** $p < .001$

표 8.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영유아집단)

예측변인		β	R^2 (adjusted)	F
사회적 지지	저위험집단	-.390*	.130	6.825*
	고위험집단	-.591***	.329	17.212***

* $p < .05$, ** $p < .01$, *** $p < .001$

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환경적 위험요인의 평균과 +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 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두 집단에 대해 각각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계수인 β 를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이 낮은 집단(저위험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13.0% 설명해주었고, $\beta = -.390$, $p < .05$,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이 높은 집단(고위험집단)은 32.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beta = -.591$, $p < .001$, 고위험집단은 저위험집단보다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2에서도 나타나듯이 두 집단 모두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기는 하나, 고위험집단의 경우에는 저위험집단보다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초등학생집단의 경우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 변인만 투입된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4.3% 설명하였고, $F(1,139) = 7.291$, $p < .01$, 환경적 위험요인 변인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의미한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경우에는 3.4%의 증분 설명력을 보여주었는데, $F(1,139) = 4.595$, $p < .01$, 이는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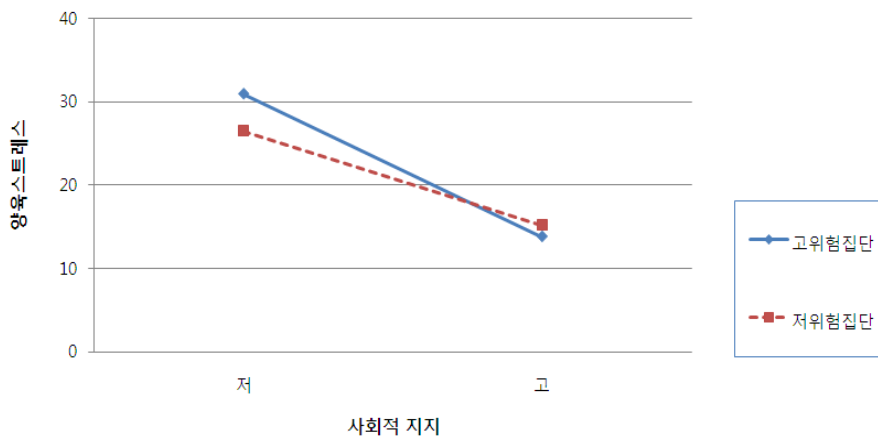


그림 2.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영유아집단)

표 9. 사회적 지지와 환경적 위험요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초등학생집단)

예측변인	β	R ² (adjusted)	ΔR^2	F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A)	-.223**	.043	.043	
환경적 위험요인(B)	.044	.038	-.005	
A×B	.794**	.072	.034	4.595**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초등학생집단)

예측변인	β	R ² (adjusted)	F
사회적 지지	저위험집단	-.474**	.207
	고위험집단	.052	-.021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환경적 위험요인의 중재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환경적 위험요인의 평균과 +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 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두 집단에 대해 각각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계수인 β 를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적 위험요인

의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이 낮은 집단(저위험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20.7% 설명해주었으나, $\beta = -.474$, $p < .01$,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이 높은 집단(고위험집단)은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52$, ns . 즉,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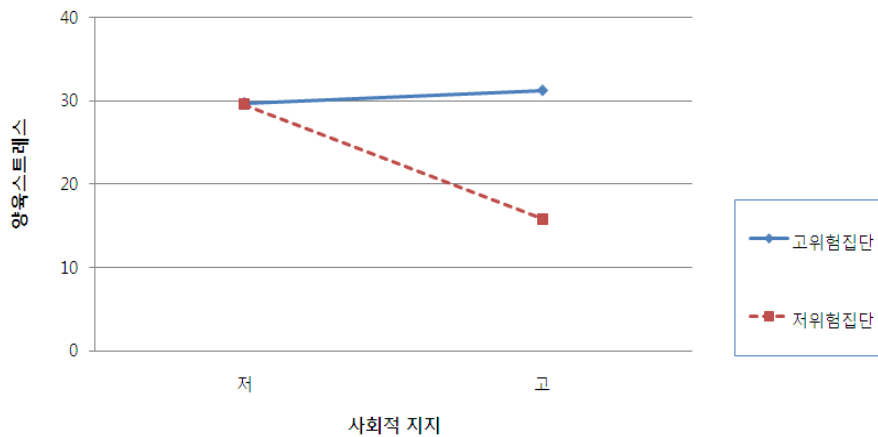


그림 3.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초등학생집단)

이 낮은 초등학생 모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과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와 초등학생으로 구분된 연령군에 따라 환경적 위험요인과 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위험요인은 영유아집단에 비해 초등학생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초등학생집단의 경우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위험요인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빈곤기간을 실제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환경적 위험요인들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만성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영유아기 집단에 비해 더욱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집단에 비해 영유아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분석에서도 연령의 증가와 함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양육과 관련되는

일이 많고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점 등이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에 반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유우영 등, 1998).

둘째, 영유아와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사회적 지지가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Ostberg & Hagekull, 2000; Crnic 등, 1983; Melson, Ladd, & Hsu, 1993).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연령군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2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에 비해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모에게는 4% 가량의 설명력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음을 시사해주며, 따라서 빈곤계층 모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움에 있어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모에 대한 조기 개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빈곤계층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에 수반하는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적 위험요인의 효과는 연령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냈으므로 연령군별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경우 환경적 위험요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과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의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유아기 자녀양육의 특성상 가사노동, 자녀돌보기, 경제적인 측면 등에서 실제적인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환경적 위험요인이 가중된다는 것은 모가 환경으로부터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적인 자원이 제한됨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환경적 위험요인의 증가로 인한 결핍이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로 인해 완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초등학생 집단에서도 환경적 위험요인이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모 중에서 환경적 위험요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높은 수준의 환경적 위험요인이 보고되는 이 집단의 특성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평가한 빈곤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환경적 위험요인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만성화되어 지속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영유아 자녀의 모에 비해 다양한 환경적 위험요인이 누적된 집단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환경적인 취약성이

높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해 온 이들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만으로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지지로 인한 스트레스의 완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은, 이처럼 환경적 위험요인이 누적된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환경적인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환경적 위험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영유아기보다는 학령기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단순한 환경적인 위험 요인 이외의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만으로 완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빈곤계층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화되며, 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위험요인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위험요인이 적을 경우에 사회적 지지에 의해 큰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빈곤계층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그리고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빈곤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에 대한 실제적 개입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모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높은 수준의 환경적인 위협에 노출된 채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는 모에게는 더 이상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빈곤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에 대한 보다 이른 개입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정서적 지지를 주로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에 있어서 도구적 지지나 정보적 지지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척도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적인 측면에 관해 더욱 구체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빈곤이라는 환경은 대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빈곤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개인적인 특성은 무엇인지에 관한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대상자인 모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질적 연구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빈곤계층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강희경 (2003). 학령기 자녀를 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7.
- 곽금주, 유제민, 김정미 (2007).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탐색: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1-19.
- 김기현 (2000).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9(1), 71-84.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위기도 판정도구 매뉴얼.
-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안인순 (2002). 저소득 편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53-71.
-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관부모 양육스트레스검사-축약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65-377.
- 이어진, 정경미, 진혜경 (2010). 발달장애아동의 섭식문제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자의 사회적 지지와 대처방식의

-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6(1), 181-208.
- 이은혜 (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 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 31-45.
- 정명숙 (2008).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및 자녀성적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07-121.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Browne, A., & Bassuk, S. S. (1997). Intimate violence in the lives of homeless and poor housed women: Prevalence and patterns in an ethnically diverse sampl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7, 261-278.
- Burchinal, M., Follmer, A., & Bryant, D. (1996). The relations of maternal social support and family structure with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 outcome among African America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73-1083.
- Chang, Y., & Fine, M. A. (2007). Modeling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among low-income young mothers across the child's second and third years: factors accounting for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584-594.
- Chase-Lasdale, P. L., Brooks-Gunn, J., & Zamsky, E. S. (1994). Young African-American multigenerational families in poverty: Quality of mothering and grandmothering. *Child Development*, 65, 373-393.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rnic, K. A., & Booth, C.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el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M.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of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Elder, G. H., Eccles, J. S., Ardel,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771-784.
- Hobfoll, S. E., Ritter, C., Lavin, J., Hulsizer, M. R., & Cameron, R. P. (1995). Depression prevalence and incidence among inner-city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445-453.
- Jacobson, D. E. (1986). Types and timing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250-264.
- Luthar, S. S. (1999). Poverty and Children's Adjustment. *Developmental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1. New York: Sage.
- Mayes, L. C., & Bornstein, M. H. (1997). The development of children exposed to cocaine. In S. S. Luthar, J. A. Burack, D. Cicchetti, & J. R. Weisz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on adjustment, risk, and disorder* (pp. 166-188). New York: Cambridge.
- McLanahan, S. S. (1997). Parent absence or poverty: Which matters more?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 of growing up poor* (pp. 35-48). New York: Russell Sage.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elson, G. F., Ladd, G. W., & Hsu, H. (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Ö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4), 615-625.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Pittman, J. F., Wright, C. A., & Lloyd, S. A. (1989). Predicting parenting difficulty. *Journal of Family Issues, 10*, 267-286.
- Silver, E. J., Heneghan, A. M., Bauman, L. J., & Stein, R. (2006). The relationship of depressive symptoms to parenting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in inner-city mothers of young children.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0*(1), 105-112.
- Spencer, M. S., Kalil, A., Larson, N. C., Spieker, S. J., & Gilchrist, L. D. (2000). Multigenerational coresidence and childrearing conflict: Links to parenting stress in teenage mothers across the first two years postpartum.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3), 157-170.
- Taylor, R. (1994). The effects of economic and social stressor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in African-American families. In R. Taylor & M. Wang (Eds.). *Social and emotional adjustment and family relations in ethnic minority famili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1 차원고접수 : 2010. 11. 6.
심사통과접수 : 2010. 12. 18.
최종원고접수 : 2010. 12. 25.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focused on children's age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Hyunsoo Yune

Kyung Ja Oh

Dep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in low-income families, focused on children's age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Mothers of 300 children(157 boys and 143 girls; 159 children aged 0-5 years and 141 children aged 6-11 years) enrolled in Dream Start, a public assistance program for low income families, were assessed with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and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ieved Social Support. Environmental risk factors were also asses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decreased with age. Furthermore, environmental risk factor had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for mothers of younger children emerged as important protective factor, while protective function of social support appeared to be important for mothers of older children only with low environmental risk factor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s for mothers in poverty.

Key words : poverty,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children's age, environmental risk factors, moderating effect